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신고 의무화

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장애인·노인에 대한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0월 1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각각 처리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단체,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 아동보호시설, 청소년 보호센터 및 청소년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가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호구역 내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야 한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장애인 자립생활 대책 촉구
시설 탐방·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사회복지소식 4·5면
은빛어르신 한마당잔치 개최
한광이의 날 기념행사 열려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시행 1년토론회
- 기획 8면
이웃사랑 자원봉사·YAHOC봉사단
사랑의 식용기부·천지영농조합법인



“보치아 경기를 아시나요”

10월 25일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보치아대회가 열린 제주시 한라체육관. 상대팀을 견제하는 신경전이 팽팽하다. 선수들은 공 하나 하나에 온 신경과 기를 집중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의자에 앉은 채 멀리 떨어져 있는 표적구를 향해 공을 정확하게 던졌다. 상대방 공을 밀어내거나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공을 붙일 때마다 관객석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지루할 틈이 없었다. 매 경기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가 펼쳐졌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제주도내 경로당에서 64개팀, 2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해 평소 갖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한 팀당 3명씩 짝을 이뤄 리그전을 치렀다.

그리스의 공던지기 경기에서 유래한 보치아는 원래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다.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올림픽에는 없고 패럴림픽에만 있는 종목 중 하나로 비장애인에게는 생소한 스포츠다.

이 경기는 양가죽으로 된 작은 축구공 모양의 빨간색 공 6개와 파란색 공 6개를 나눠 가진 후 흰색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던진 공에 1점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6



▲10월 25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보치아대회가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표적구를 향해 조심스럽게 공을 던지고 있다.

도내 경로당 보치아대회 열려...64개팀 참가 공 던질 때마다 환호·탄식 교차...긴장 팽팽

회 경기를 치른 후 점수를 합산해 높은 득점한 한 팀이 이긴다.

경기 규칙은 간단하지만 전략은 무궁무진하다. 표적구나 초구의 위치 등으로 경기를 완전히 선점할 수 있다.

장애 유무나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탓에 최근에는 장애인은 물론 노인과 어린이들까

지 즐기는 대중스포츠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

이날 출전한 선수들의 실력도 만만치 않았다.

표적구에 바짝 붙은 상대팀 공을 쳐낸 뒤 자신들 공과 자리바꿈하는 ‘명사수’들도 여럿 있었다.

단체 결승전에서는 서귀포시 서귀경로당과 제주시 일도2동 대유대림경로당이 맞붙

어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서귀경로당이 6대 3으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한 참가자는 “보치아 경기의 재미를 모르는 사람은 말을 말아야 한다”며 “다양한 전술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가 매우 흥미진진하다”고 보치아의 매력을 설명했다.

제주도노인복지관 관계자는 “보치아는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스포츠”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다지는데 좋은 운동”이라고 말했다.



11월 사회복지시설·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12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itnews@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행사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 설 · 단 체 명	행 사 명	주 요 내 용	일 시 · 장 소	문 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2012 자립지원 프로그램 ‘사람책 도서관’	전문직업인들과의 만남, 멘토의 꿈 찾기 위한 과정 등	3일, 사람책활동가 근무지 및 센터	747-3273
제주애덕의집	장애인평생학습축제	공연, 발표회, 각 강좌별 체험 등	10일, 신성여중고 체육관	724-8101~2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9회 아동학대예방 학술세미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책	24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제주한라대학교 금호미래관 대강당	712-1391~4
제주DPI(장애인연맹) 부설 장애인영상미디어지원센터	한국애니마라톤-제주	애니메이션 무료 상영회	17일 11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757-9897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동 이동보조기기 방수물품 및 안전전조등 무상지원	방수물품 및 안전전조등 지원	16일까지 신청 접수	751-9100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12회 전도지체장애인체육대회	플라잉디스크, 컬링, 휠체어 이어달리기 등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조천체육관	756-4980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 대책 마련하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시행령·규칙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피폐한 삶”



▲제주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서귀포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10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지역 장애인 자립지원시설들이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최희순)와 서귀포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성완)는 10월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장애인의 자립생

활을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아직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중증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지역사회에서 분리·단절·배제·소외되지 않도록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중증장애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개정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아 사회·행정·예산 지원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생활시설에 가두고 병원에만 가두려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으로는 중증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립생활 실현은 요원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주거지원, 이동지원, 근로지원 및 동료상담 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당사자 운동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과 함께 1인 시위와 서명운동 등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지역복지문제 지역복지자원으로 해결

읍·면·동 복지위원협의회체 운영·복지위원 확대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복지자원으로 해결하기 위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회체’가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읍·면·동별 2명인 복지위원을 5~15명까지 확대해 11월부터 읍·면·동 복지위원협의회체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읍·면·동 복지위원협의회 운영은 10월 17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본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복지체계로는 지속가능한 복지실현에 한계가 있어 기부와 나눔 등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복지위원협의회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역의 복지자원을 활용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

영된다.

복지위원은 지역사회 복지사업 기관·단체 대표, 교육·종교·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 사회복지사가 1명 이상 포함된다.

복지위원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조례 등 법규로 설치, 위촉된 각종 단체의 장은 제외된다.

복지위원은 저소득 주민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족, 부자가족, 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의 권익 보호와 상담, 사회복지시설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맡는다.

급식비와 교통비 등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되지만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무보수 봉사직이다. 임기는 3년이다.

제주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2040년엔 노인인구비율 35% 달해

제주지역이 오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40년에는 제주지역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가 최근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제주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이 12만1490명으로 전체 인구(56만9433명)의 21.3%를 차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했다.

노인 인구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30년 26.0%, 2035년 30.6%, 2040년 35.0%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도는 1996년 노인인구

비율이 7.0%로 고령화사회로 들어섰다. 2010년 노인인구 비율은 12.6%다.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 20% 미만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제주 지역의 기대수명(2011년 통계청 조사)은 남성 77.2년, 여성 84.1년으로 남성보다는 여성 노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10년 통계청 조사에서 제주의 가족 구성원은 부모의 노후 부양 주체 우선순위로 가족(46.9%), 가족·정부·사회 공동(36.8%), 부모 스스로(12.1%) 등을 꼽았다.

폭력피해여성·아동 지원센터 내년 설치

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가 제주지역에 들어선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과 아동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주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가 내년 설치, 운영된다.

제주시 한라병원에 설치되는 지원센터에는 경찰관과 상담사 각 3명, 임상심리사, 간호사 각 1명 등이 배치된다.

센터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연중무휴로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다.

심리진단과 평가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리 치료와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센터의 운영비와 치료비는 여성부와 제주도가 지원한다.



장애인 한마음축제 걷기대회 10월 18일 제주시 한라체육관 일대에서 열린 ‘제13회 장애인 한마음축제’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화합을 다지고 있다.

외벌이·농촌지역가구 다출산 비율 높아

제주에서 맞벌이보다는 외벌이 부부,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부부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올해 상반기에 자녀를 출산한 2846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외벌이 가구의 출생아 수가 1600명으로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맞벌이 가구의 출생아 수는 1136명(39.9%), 기타 가구 110명(3.9%)였다.

3명 이상 자녀를 둔 비율도 외벌이 가구가 21.6%로 맞벌이 가구 15.8%에 견줘 훨씬 많았다.

3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농촌인 읍·면이 22.3%로 도시인 동지역의 18.2%보다 높았다.

3자녀 이상을 둔 가구 가장(부 기준)의 학력 수준은 고졸 이하 24.4%, 대졸 17.1%, 대학원 이상 16.9%로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를 많이 낳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출생아 2849명 가운데 다문화 가정 출생아는 125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맞벌이 가구의 다출산 유도를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급여 신청 증가

제주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 신청 건수는 1만81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377건보다 26.5%(3818건) 늘었다.

복지급여 신청 건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33건, 우선 돌

봄 차상위 519건, 영유아보육료·유아학비 1만1682건, 한부모가족 585건, 노령연금 2425건,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 648건, 기타 903건이다.

유형별 증가율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우선 돌봄 차상위는 32.3%, 영유아보육료·유아학비는 29.9%, 한부모가족과 기초노령연금이 16%,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 기타는 17.3% 등이다.

시설탐방

(60)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함께 사는 세상의 즐거움’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최영열)는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다. 장애인들이 24시간 생활하는 시설과 달리 낮 시간대에 장애인을 보호하면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이사장 강우일 주교)가 운영하는 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10월 24일 찾았다.



제주시 화북2동 황사평에 위치한 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문을 연 것은 지난해 6월 17일. 낮 시간대에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이 태부족한 상황에서 가톨릭사회복지회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을 개원한 것이다.

사회 적응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보호에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정에는 일상적인 보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가톨릭사회복지회는 센터 개원을 위해 2010년 11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이듬해 1월부터 주간보호사업을 시작했다.

센터 이용 대상은 지적·자폐성 1급 장애인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이다. 현재 이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16명.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용료는 월 15만원이다.

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6가지로 나뉜다.

식사지도와 개인위생관리 등 자립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작업치료, 건강관리, 구강위생관리 등 의료지원 서비스와 요리활동, 정보화교육 등 교육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지난해 6월 문 열어
자립·교육·정서지원 등 전문적 서비스 제공

특히 센터가 공을 들이는 분야는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돕는 일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이른바 ‘몸짱(ZZang) 마음 짱(ZZang)’이다. 한 마디로 심신 건강 프로젝트인 셈이다.

이 사업은 수중재활운동, 요가명상, 율레명상여행, 여가문화체험 등 4가지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됐다.

이 밖에도 꽃과 음악을 이용한 치료 서비스와 시설연합 캠프, 도외 나들이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기분 전환은 물론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있다.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비록 손놀림이 느리고, 서

툴고 익숙하지는 않지만 도자기 작업장에서 흙을 만지고 다듬으며 세상에서 유일한 자기만의 컵과 그릇을 만들어 가족에게 선물하기도 한다.

또 특별활동으로 바리스타(커피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배우고 익힌다.

최영열 원장은 “제주시내에는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이 없었다”며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도 즐겁고 교사도 즐거운 센터, 활기찬 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724-0999

2014년까지 복지담당 공무원 3000여명 확충

정부, 내년 1400여명 내후년 2000명 충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할 공무원이 내년과 내후년에 약 3000명 확충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에 신규로 채용될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신규 충원 996명과 전년도 미충원·결원 보충분 435명 등 1431명이다.

여기에 사회복지 담당 업무로 재배치될 기존 행정직 공무원 약 500명을 합하면 내년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인력의 증원 규모는 2000명에 이른다. 이어 2014년에는 신규충원(540명), 자연결원 충원(200명), 행정직 재배치(400명) 등을 통해 1140명 내외의 복지부

야 공무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세웠던 올해 지자체 복지인력 확충 목표는 3028명이었으며 이 중 86.7%인 2626명이 6월말 기준으로 이미 배치됐다.

정부는 지자체의 복지인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차등 지원과 예산배정 등에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수요가 매년 늘어나는데 담당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약 1만4000명이며, 복지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렬 공무원은 약 9000명이다.

자살예방전문가 교육 실시

제주시정신건강센터는 10월 11~12일 이틀간 제주보건소 2층 소회의실에서 정신보건 전문가, 관련 기관 종사자, 교육상담 전문가 등 28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

도내에서 자살예방 전문가 교육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살 응급처치 및 자살개입 기술훈련 프로그램’이란 주제



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자살응급처치의 중요성과 자살위험자의 염려 및 도움 제공자의 과제 배우기, 자살증제모델 이해, 자살예방을 위한 네트워킹 등 자살예방에 대한 이론과 실습이 진행됐다.

일배움터, 목공전시회 개최



일배움터는 11월 2~3일 이틀간 제주상공회의소 인근에 위치한 카페 플로베에서 목공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이 땀흘려 만든 나무화분과 테이블, 쉼반 등이 선보인다. 일배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목공예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자광원, 부산·경주 문화탐방



자광원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 부산과 경주지역의 문화역사 현장을 둘러보는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문화탐방은 9월 15일 열린 문화탐방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에 참가한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성사됐다.

자광원 관계자는 “이번 여행을 통해 서로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낮은울타리어린이집, 가을 나들이

낮은울타리 어린이집은 9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국내여행 안내사업회의 후원으로 도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가을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150여명의 참가자들은 제주평화센터, 박물관을 살이



다, 정보빌리지 등을 관람하며 모처럼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동·서북지역 어르신 한마당잔치 '성황'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은빛어르신한마당잔치 개최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 의사소통 한마당

10월 노인의 달을 맞아 제주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한마당잔치가 잇따라 열렸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은 10월 19일 한림읍체육관에서 '제10회 은빛어르신한마당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등 서부지역 어르신 1000여명이 참석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고전무용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해군제주방어사령부 군악대 연주, 서부보건소 댄스스포츠팀과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댄스교실팀의 지루박 댄스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이어 그동안 각 마을 경로당에서 운영한 취미 및 여가 활동,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해 익히고 배운 솜씨를 자랑하는 경연이 펼쳐졌다.

경연대회에서는 수산리 경로당이 금상을, 산양 수룡동 경로당이 은상을, 금능리 경로당이 동상을 각각 차지했다.

이에 앞서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주일)은 10월 17일 제주시의 후원으로 '2012년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주민 의사소통 한마당잔치'를 열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구좌읍 12개리,



▲10월 노인의 달을 맞아 제주시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제10회 은빛어르신한마당잔치' (사진 왼쪽)와 '2012년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주민 의사소통 한마당잔치'가 열렸다.

16개 경로당 어르신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경로당별 장기자랑 및 게임, 식사제공, 경품추첨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제주시청과 동부보건소는 물론 지역 내 8개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해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행사로 치러졌다.

제장복, 부모교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10월 22일 남서울대학교 김은실 교수를 초청, '희망충전 부모교실-특별한 아이들의 마음읽기' 강좌를 운영했다.

이날 강좌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성장발달에 따른 특성을 이해시킴으로써 양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모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특별한 아이들의 마음읽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좌에서는 가정과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지혜롭게 소통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사회복지협 자원봉사연합회,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연합회(회장 이백만)은 10월 21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와 제주시 아라동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 2가구를 찾아 도배, 장판교체, 부엌개량 등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자원봉사연합회는 지난 2001년부터 해마다 도내 저소득가정 20여가구를 방문해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부모회, 임직원 연수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회장 한봉금)는 10월 17~18일 이틀간 충청북도에 위치한 해원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 프란치스코의 집, 이름의 터, 보람근로원 등의 시설을 견학하는 임·직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타 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견학을 통해 장애인복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소/식/마/당

성안복지재단, 에코랜드가족나들이



사회복지법인 성안복지재단 조순가정지원센터(센터장 박차상)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후원을 받아 10월 20일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에 위치한 에코랜드에서 가족나들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르신과 손자녀들은 기차여행, 토피어리 체험, 올레길 걷기 등을 하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라복지관, 주민과 함께하는 나들이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10월 20일 복지관 자원봉사자자연합회와 제주은행 IT지원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170여명의 주민들은 오전에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4·3관련 영상과 전시관을 관람한데 이어 오후에는 매직아일랜드에서 마술쇼를 구경했다.

해정원 아가의집, 요리·조리 행복나들이



해정원 아가의집(원장 박두현)은 10월 13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 자유도시과와 교통항공과 주최로 열린 '기차타고 조랑말과 함께 요리·조리 행복나들이'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라온 더 마파크와 에코랜드를 방문하는 등 모처럼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전세버스조합에서는 이날 참가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차량을 지원해 줬다.

춘강, 무연분묘 위령 천도재 봉행



사회복지법인 춘강(이사장 이동한)은 10월 13일 제주시 충혼묘지 주차장에서 '제10회 무연분묘·무주고혼 위령천도제'를 봉행했다. 이날 천도제는 자손이 없어 성묘와 제사를 못 지내는 무연분묘 6만여기의 영혼을 위로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방사 주지 해일 스님과 제주불교의례보존회원 스님들의 천도재 봉행에 이어 추모법회가 열렸다.

제주시니어클럽, 노인 문화체험활동



사회복지법인 십나기 제주시니어클럽(관장 황영애)은 10월 15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5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들의 일자리참여뿐만 아니라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이날 성읍민속마을과 돌문화공원 등을 관람했다.

애덕의집 어우렁풍물패, 탐라대전 참가



제주애덕의집(원장 현성훈) 어우렁 풍물패는 9월 13일 '2012 탐라대전 바람차 퍼레이드'에 참가해 신명나는 공연을 펼쳤다. 어우렁 풍물패는 김택균 교사의 지도 아래 풍물을 배우고 있다.

제주애덕의집은 전통가락을 배우면서 생활의 활력과 성취감, 정서적 안정을 심어주기 위해 2004년부터 풍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공인된 도구”

시각장애인복지관서 흰지팡이의 날기념행사 열려
복지유공자표창·장기자랑·민속공연 등 펼쳐



▲제33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15일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서 열린 가운데 장애인들이 흥겨운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제33회 흰지팡이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10월 15일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각장애인 복지유공자 7명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장기자랑, 민속공연 등이 펼쳐졌다.

‘흰지팡이 날’은 10월 15일로 시각장애인의 권익옹호

와 복지증진을 위해 세계맹인 연합회가 1980년 제정했다.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고 활동하는데 적합한 도구이자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를 나타내는 공인된 상징이다.

노인들이 보행에 쓰이고 있는 지팡이와는 구별되며, 시각장애인 외의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누구든지 흰지팡이를 동정의 대상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며,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또 하나의 눈”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최로 10월 15일을 전후해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기념식과 부대행사를 열어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흰지팡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 도로교통법 제48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걷고 있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걷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시각장애인들의 인체물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7000만원을 들여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시켜 들려주는 ‘보이스아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각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관 5곳에 보이스아이 리더기 30대를 보급했다.

학대피해 아동 위한 ‘YOU&I 꿈자람 스토리’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 주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10월 6일 학대피해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아동 18명을 대상으로 2012년 초록우산 감성아카데미 ‘YOU & I 꿈자람 스토리’ 3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제주국제공항지점 항공정비팀 직원 5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아동들과 함께 난타공연을 관람하고, 피자회에서 맛있는 간식을 제공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아시아나항공 항공정비팀 김진수대리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이 우리의 재능에 웃고, 즐길 수 있어 기뻐다”며 “따뜻한 대화 몇 마디에 친해진 아이



들의 뒷모습이 행복해 보였다”고 말했다.

아동들 역시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또래 친구들과 자원봉사자와의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초록우산 감성아카데미 ‘YOU & I 꿈자람 스토리’는 11월에 4기 활동이 진행되며, 또래활동과 문화체험의 기회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녀를 위한 건강한 성 교육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최근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행복재발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부부가 함께 만드는 자녀의 건강한 성(性)’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나의 부부관계, 성을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또 올바른 유아 성교육의 필요성과 부부의 건강한 성,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이 진행됐다.



한 참가자는 “아이가 성에 대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대충 넘겨버렸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제3회 장애인근로자 한마당 개최

장기자랑·수기발표 등 화합의 장

‘제3회 장애인근로자 한마당’ 행사가 10월 25일 오후 제주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서귀포시장 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탐라종합복지관, 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등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5개 기관 및 시설 관계자와 장애인근로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힘쓴 5개 사업체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범 장애인근로자 5명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이 수여됐다.

개회식 이후에는 레크레이션, 사업체별 장기자랑, 장애



인근로자 수기 발표 등이 진행됐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체 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으로 더 많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제주지역 직업재활 네트워크 사업을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올레걷기, 법률상담 등이다.



신나게 놀자 ‘어린이 놀이마당’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10월 14일 인화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위탁가정,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어린이 놀이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레크레이션을 비롯해 에어바운스, 페이스페인팅, 가족사진촬영, 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인터넷 게임 등 평소 혼자 즐기는 놀이에 길들여진 아동들이 친구와 가족 등과 함께 신나게 뛰놀며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새로운 지역사회만들기

‘헌디모영’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옥희)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참여형 새로운 지역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인 ‘헌디모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동흥주공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지도자 리더십 코칭, 웃음치료 교육, 의사소통기술, 서귀포역사 알기, 식중독예방교육, 임대주택법 교육, 깨끗한 마을 만들기,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10월 식품기탁자

▲강경찬씨=감귤 60kg	▲김봉선씨=늙은호박 45개	▲이명구씨=구운김 229봉	▲금강축산유통=육류 111.5kg
▲김치원=김치 40kg	▲뉴월드마트서사라점=김 91봉	▲빵따아모=빵 40봉	▲서문식품=두부 432모, 콩나물 40봉
▲신농영농조합=장아찌류 100kg, 무말랭이 20kg	▲아산재단=쌀 200kg	▲이든이네=건어물 6kg	▲이어도지역자활센터=채소 52kg
▲제주보리촌=보리빵131봉	▲제주의소리=음료11개, 컵라면178개, 삼다수(2Lx6개)90팩, 바나나 52kg, 빵 60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참쌀 4kg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500mlx20개) 150팩
▲존샘봉사회=고추장 50kg, 수건 20장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172봉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수제화 동아리=성금 600,000원	▲무기명 기탁=54,000원



사회복지협의회 2012년 9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760,000	760,000
난치병환아후원	80,000	0
자원봉사후원	500,000	500,000
복지사업후원	1,015,000	3,233,900
푸드마켓후원	3,000,000	7,802,51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론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고 보 선

제주국제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 준비와 노력의 하나로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12월 WHO(세계보건기구)는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등 고령친화환경을 제고하는 국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고령친화도시 구축 과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여 노인을 포함한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적극적인 사회, 경제적 참여기회를 누리는 서울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올해 WHO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준비를 마무리하고 2013

년에 가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단계별 노력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나, 이후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는 노인만을 위한 환경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모든 연령과 계층이 보다 더 나은 삶을 함께 공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구성원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단계별 계획이 중요하다.

우선, 고령친화환경 점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제주의 고령친화환경 수준을 진단하고 영역별 비교를 통하여 고령친화환경 수준을 제고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둘째,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노인을 포함한 지역구성원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고령친화적 정책 추진의 의의 기반이 되는 지역의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령자를 존중하고 연령과 계층을 통합하는 지역사회구축을 통하여 구성원의 주체적인 역할과 사회적 합의를 이

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자치단체간 연계를 촉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정책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령친화환경 조성에 대한 기초단계에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고령친화적 환경 및 고령친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욕구반영한 단계별 계획중요

넷째, 정부는 고령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노인문제와 더불어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안전망을 검토하여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얼마 전 제21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지사회에서 제주도 지사를 포함하여 8개 시도현 지사들이 한일양국의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으로 제주도가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냉철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사회적 합의가 기반이 된 구체적인 노력이 지역구성원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칼럼

당신의 화양연화
(花樣年華)

고 수 희

평안전문요양원 부원장

가을이 깊어간다. 출근길에 지나가는 516도로의 숲터널에도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가을의 정취가 가득하다. 사계절 아름답지 않은 때가 없는 곳이지만, 올 가을은 유난히 단풍이 곱게 물든 것 같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느낌이다.

〈화양연화(花樣年華)〉는 왕가위 감독이 연출하고 장만옥과 양조위라는 걸출한 두 배우가 인간의 미묘한 심리상태를 기가 막히게 연기한 영화의 제목인데, 그 뜻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의미한다.

누구나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소망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온갖 역경과 어려움 투성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상처받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살아간다. 물론 행복한 일도 있지만, 불행한 일은 항상 행복한 일보다 강도가 더 센 것처럼 느껴져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

사람마다 불행과 역경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서 어떤 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이는 바닥을 친 힘으로 더욱 더 높게 도약하기도 한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현재 인생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국제가수 사이의 경우를 보자. 전혀 연예인답지 않은 개성 강한 외모를 가진 그가 월드스타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의 노래 〈강남스타일〉의 가사처럼 그야말로 '반전있는' 새 삶이 시작된 것이다. 싸이가 자신의 삶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인생 역경의 순간순간마다 털썩 주저앉아버렸다면 오늘 날의 인생 역전도 없지 않았을까?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잠재적인 힘을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고 하는데, 역사 속의 위인들의 경우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위인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역경 '덕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연세대 김주환 교수는 자신이 저술한 '회복탄력성' (2011, 위즈덤하우스)에서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것을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몸의 근육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듯이 마음의 근육은 마음의 잔병치레를 막아준다는 것이다. 즉 회복탄력성은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힘인 동시에, 자잘한 일상사 속에서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의 갈등을 자연스레 이겨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힘인 것이다. 김교수는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 스스로 행복해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글머리의 단풍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 눈에는 아름답게만 보이는 단풍이 기실 나무에게는 생존의 몸부림의 결과라고 한다. 푸르름의 원천인 엽록소가 겨울에는 에너지만 소모하기 때문에, 나무가 겨울을 잘 나기 위하여 엽록소를 밀어낸 결과 잎이 붉게 혹은 노랗게 물든다는 것이다. 저절로 주어지는 아름다움도, 저절로 주어지는 행복도 없는 것이 진리인 셈이다. 하루하루 고단한 일상 속에서 역경과 갈등을 이겨낸 당신을 응원한다. 그리고 당신에게 다가올 당신만의 화양연화를 응원한다.

기고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대상 확대



강 정 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어르신 등 일부 저소득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대상이 기초노령연금수급 어르신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필자가 발의하여 지난 9월 27일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틀니 보청기 지원 조례'는 이같이 틀니 보청기 지원 대상을 기초노령연금수급 어르신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을 넘어 한해서 65세 이상 7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시술비용 전액을, 7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전액을, 그리고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보청기의 경우는 7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34만원을 지원받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만 한정되어 지원되던 틀니·보청기 지원을 전체 노인의 70%에 이르는 기초노령연금수급 어르신까지 확대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7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의 경우, 자칫 지원에서 소외될 수도 있었던 것을 지속적으로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74세 이하 어르신은 1.6%, 75세 이상 어르신은 6.6% 등 틀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앞으로 모든 어르신들이 원활한 음식물 섭취와 의사소통을 통해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숨은 일꾼과 아름다운 이야기 등을 알려주시면 적극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1년 정책토론회

“장애등급에 따른 서비스 제한 폐지해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행 1년을 돌아보는 정책토론회가 10월 10일 열린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법률로 제정·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난 1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정책제안을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1년을 돌아보는 정책토론회’를 10월 10일 개최했다.

현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법률로 보장됐으나, 여전히 이용자·활동보조인·중계기관·교육기관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제도적 한계점과 문제만 노출시키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를 장애등급 1급으로 제한하고, 차등적으로 이용시간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등급재심사 소득에 따라 자부담 등 복잡한 이용절차 때문에 신규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계는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해 ▲장애등급 2급 장애인까지 신청 확대 ▲장애이동 시간을 성인기준으로 인상 ▲추가급여 신설 ▲활동보조인 시간급여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고, 활동보조 인정조사표를 새롭게 개정해 인정조사를 더 객관적으로 할 것을 개선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발제자로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남 정책실장은 “서비스 하락 사태에 대한 대책과 인정조사표 개정은 별개의 문제”라며 “대량 하락 사태는 인정조사 문항의 문제가 아닌 접수기준과 예산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정조사표 개정은 근본적 문제가 아닐뿐더러 올바

가장 유사한 일본을 예로 들어 “한국과 가장 유사한 장애등급으로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고, 장애정도 구분이 판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나 환경과 욕구를 감안해 지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서비스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대상을 장애등급 2급까지 확대한다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제가 악용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장애등급 2

가 없음에도 공무원이 내용을 몰라 일방적으로 장애등급제 판정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포로 장애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은 서비스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남 정책실장은 “현행 본인부담금 제도는 서비스를 많이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상황”이라며 “현행 본인부담금

조인의 심야·휴일 노동에 대한 수당이 장애인의 바우처 삭감없이 지급돼야 하며, 일정비율 이상을 정규직 고용 등 장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 한자협 박현 활동보조위원장, 활동보조인연대 고미숙 집행위원장, 인권연대 장애와 여성 마실 김광이대표 등이 참석해 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한자협 박현 활동보조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모든 문제는 예산의 문제라고 변명하지만,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예산 중 약 750억원이 환수된다고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갖고 예산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활동보조인연대 고미숙 집행위원장은 “노동자라면 누구도 함부로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은 이용인이 그만두라고 하면 바로 해고된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건, 혹은 부당한 이유라고 해도 아무런 방어를 할 수 없다. 월급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들쭉날쭉한 임금을 해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을 하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웰페어뉴스(www.welfarenews.net) 제공>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장애1급으로 제한 이용률 15%에 불과…장애계, 제도개선 촉구

른 해결책도 아니다. 오히려 의학적 기준을 강화하는 형태로 사정체계가 경직되는 상황”이라며 “인정조사표 접수만으로 서비스가 판정되는 사정기준과 사정체계의 문제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인정조사표 중심의 사정체계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욕구와 자립의지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서비스받게 되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는 것.

그는 “인정조사표 기준뿐 아니라 환경과 욕구가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급으로 신청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의미 없는 장애등급제를 유지하려는 기만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고작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35만명(전체 장애인의 14.5%) 중에서 고작 15%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제한적인 제도”라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해 이의신청, 변경신청, 수급자격갱신 등의 경우 장애등급재판정의 의무

제도는 서비스의 제공형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인요양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됐으며, 과도한 본인부담금은 현장에서 부정수급 발생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매년 6~7%의 수가 인상 계획으로는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 매년 10% 이상의 수가인상을 통해 활동보조인의 임금인상과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자금을 명시해야 한다”며 “활동보



연중 기획

'이웃사랑 지원봉사'

→ (9)YAHOB봉사단

아동·청소년에 놀이 통해 경제교육

대학생 봉사단, 경제증권교실 경제놀이터 강사로 활동

매월 2차례 지역아동센터 찾아 눈높이 교육 '재능봉사'

“이것은 없는 돈을 만들어 내는 요술카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돈이 없어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지만, 약속한 날짜에 갚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주지역에 있는 해바라기·다사랑·더불어숲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치러진 경제폴든벨 지역예선대회 문제 중 하나로 정답은 '신용카드'다.

이들 3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지난 2월부터 청소년 경제증권교실 경제놀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들이다.

제주지역 대표를 선발하는 지역예선에서는 더불어숲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본선 대회에 진출

했다. 경제폴든벨 본선은 지난 9월 전국 9개 지역에서 치열한 예선을 거쳐 올라온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참가해 그동안 배운 경제상식을 놓고 진검승부를 펼쳤다.

경제폴든벨 대회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YAHOB(야호) 봉사단'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가능했다.

YAHOB봉사단은 삼성증권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경제증권교실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봉사단이다.

'YAHOB'는 'Young Assistant Happy Opportunity'의 약자로 '삼성증권의 젊은 대학생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경제교육 기회를 함께 하자'

는 뜻이다.

삼성증권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와 함께 전국 9개 지역 사회복지단체와 협약을 맺고 2009년부터 YAHOB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봉사단으로 선발된 대학생은 1년간 재능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 등 경제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2회씩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것이다.

제주지역 YAHOB봉사단은 현재 3기 단원 9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지난 2월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대학생 100여명과 함께 3기 발대식을 갖고 3월부터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삼성증권은 봉사단이 사용할 교재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한편 봉사단 활동 인증서 발급, 임원과의 만남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YAHOB봉사단이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경제증권교실 경제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7월 삼성증권의 경제증권교실 거점센터로 지정돼 YAHOB봉사단을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3기 YAHOB봉사단원들은 3명씩 한 팀을 이뤄 매월 2차례 도내 3개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놀이와 게임 등을 통해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YAHOB봉사단장인 홍승용씨(27·제주대 관광경영학과)는 “금융분야에 관심이 많아 봉사단에 참여하게 됐는데 9개월 간 활동하다 보니 오히려 아이들에게 배우는 게 더 많다”며 “경제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배우고 자신감과 성취감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면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랑의식품을 이웃과 함께'

→ (5)김태웅 천지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제주구세군기초푸드뱅크에 4년여간 육류를 기탁해 온 천지영농조합법인 김태웅 대표이사가 제주시 외도동 사무실 앞에서 활짝 웃고 있다.

4년여간 육류 1억1000만원 어치 기부

기초푸드뱅크에 매주 기탁...보육원에도 물품 후원

해안초교 졸업생 전원에 3년째 장학금 지급 등 선행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수년째 식품기부는 물론 자원봉사를 통해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이가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축산물 유통업체인 천지영농조합법인 김태웅(46) 대표이사가 그 주인공.

그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매주 1회 제주구세군기초푸드뱅크에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육류를 기탁해 오고 있다.

올해 10월 현재까지 4년 넘게 육류 8563kg을 기부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억 1000여 만원에 달한다.

푸드뱅크는 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식품이나 물품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식품

나눔은행'을 말한다.

김 대표이사의 선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가 운영하는 사업장(제주시 외도1동 소재) 인근에 위치한 제주보육원에 2010년부터 매달 쌀이나 고기, 양말 등을 기부하고 있다.

그동안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부해 온 터라 제주보육원 측은 '익명의 복지가'로만 알고 있다. '원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잠언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나눔파트너'이기도 한 그는 복지관에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하고 있다.

제주시 해안초등학교 졸업생들에게는 3년째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비록 자신의 모교는 아니지만 2010년 인연을 맺은 이후 매년 졸업생 전원에게 10만원씩 전달하고 있다. 해안초교는 지난해 3월 본교로 승격했으며, 졸업생은 한 해 16~18명 정도이다.

그는 바쁜 시간을 쪼개 자원봉사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자신의 모교인 김녕중학교 동문 60여 명과 함께 '만장봉사단'을 결성한 후 해안가 쓰레기줍기, 화장실 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청소년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 대표이사는 “나눔은 결코 거창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조그마한 것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늘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했다.